청소년 포교, 엄마 마음이면 '충분'

반송 원오사 꿈나무 공부방

"반송지역 방과 후 학교를 다니던 초등학생들이 졸업이후 중학교를 가면서 방과 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더군요. 학교를 마친 뒤 떠돌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제 차방을 개조해 급히 공부방으로 만든 게 지금의 꿈나무가꾸기 명정장학재단이 되었습니다."

7월 17일 롯데 사직구장에는 롯데와 LG의 시합으로 응원 열기가 뜨겁다. 그 사이로 유독 시선을 끄는 이들이 있다. 반송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과 방과 후 공부방의 중학생들이 야구경기 관람을 나온것이다.

오늘 야구장 관람은 특별한 초대가 있었다. 롯데 4번 타자 강민호 선수가 초대를 한 것이다. 강민호 선수와 지금은 일본의 오릭스에서 활동하는 이대호 선수는 반송 원오사 공부방 청소년들과 오랜 인연을 쌓고 있다. 특히 이대호 선수는 정관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2012년 설립한 명정장학재단의 이사이고, 공부방을 설립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동짓날이면 원오사를 방문, 장학금 지급과 볼사인회로 지역 꿈나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원오사는 부산 반송지역에 위치해 있다. 반송지역은 부산사람은 다 알만큼 경제적 여건히 녹록지 못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 조손 가정, 결손 가정, 맞벌이 등으로 방과 후 홀로 집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한창 성장기와 사춘기를 함께 맞이하는 중등과정의 청소년들에게는 이 시기의 멘토링과 정서적 유대는 매우 중요하다.


원오사는 2008년부터 공부방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다. 사진은 사직야구장으로 야구관람을 나간 주지 정관 스님과 학생들

2008년부터 공부방 운영
이대호 강민호 선수 등 응원 '큰 힘'
공간 협소…2층 건물 불사 발원

꿈나무공부방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배현정 선생님은 " '엄마 같은 마음이면 충분하다' 는 스님의 말씀에 시작하게 됐다"며 "운영하는 중간에 큰 위기도 있었지만, '엄마 같은 마음' 이 통했는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다."며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정관 스님은 "2008년 30여명의 후원자가 어느덧 850여 명으로 늘고, 자원봉사 선생님도 10여명이 됐다. 이런 외적인 변화만큼이나 아이들의 경계심, 마음의 문도 넓고 커지는 모습을 보는게 가장 감격스럽다"며 "학생들이 때로는 저를 친구처럼, 큰 형처럼 문자나 전화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내올 때면 서로간의 정서적 교감이 지금을 만든 것 같다"고 운영의 철학에 대해 전했다.

이어서 스님은 "아쉬움이 있다면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에 비해 공부방이 협소한 것이다.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 반송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소통할 수 있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공부방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발원하고 있다"며 포부를 전했다.

반송 원오사는 방과 후 공부방은 물론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유아와 아동들의 언어치료장학사업, 독서골든벨 행사 후원, 북한어린이돕기, 승려장학금지급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영호남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훈훈'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7월 12일~13일

지역간의 소통과 문화교류를 위한 영호남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인 '영호남 청소년어울림 출범식' 이 부산에서 개최됐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7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신라대학교 백양생활관에서 머물며 팀별 게임, 어울림 마당, 출범식, 부산관광 등으로 1박2일동안 화합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류에는 여수 중앙여고 120명, 부산 대덕여고 120명, 총 240명의 영호남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7월12일 열린 출범식에는 박수관 본부장을 비롯, 이호근 여수부시장, 백운현 부산정무부시장, 김수병 부산MBC사장, 박태학 신라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박수관 본부장은 "영호남의 지역간 소통과 문화교류를 위해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교류를 맞이한 게 어느덧 9년째를 맞이한다"며 "짧은 만남이지만 좋은 벗이 되어 나라와 기업의 일꾼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주최한 영호남 어울림 한마당

한편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7월22일부터 7월25일까지 여름방학 청소년 특별프로그램으로 '나눔+배움, 부산사랑이 자란다' 사업을 진행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2013부산연등축제 회향법회


한마음선원 종합우승 수상 장면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는 7월17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3 부산연등축제 평가 및 회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상임부회장 효원 정사,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회향보고, 표창 및 시상, 하반기 주요사업 등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시상에는 종합우승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최우수상에 진각종 부산교구가 차지했으며, 창작등 경연대회 대상은 여래사불교대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몽골 이주민 위한 '나담축제'

마하이주민센터 주최 7월 14일 잔디광장서

몽골 전통축제 '나담축제' 가 대구의 불교단체 주관으로 열렸다. 국제 불교교류 단체인 '함께하는 세상' 산하 단체 '마하이주민센터' 는 7월 14일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 잔디광장에서 '제2회 몽골 나담축제' 를 개최했다.

몽골 이주근로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축제는 몽골씨름과 팔씨름, 줄다리기, 달리기 등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몽골 춤과 음악 공연도 마련돼 몽골 이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즐거운 한마당이 되었다.

마하이주민센터 지도법사 덕현 스님(아미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몽골 이주민들이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힘든 타국 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전통사찰의 냉난방기 설치

기후변화 때문인지 이제는 한국에서 여름나기가 쉽지 않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기온으로 허덕거리기도 하고, 계속 비가 내린 탓에 대기가 습해지면서 주변이 온통 짜증부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어린시절에는 아무리 날씨가 덥다 해도 요즘 같지는 않았으며, 덥다고 해도 계류에서 탁족을 즐기면서 수박 한 덩이를 나누어 먹으면 더위가 저만치 달아나곤 했다. 이것을 보면 최근 들어 기후가 달라진 것도 문제지만 더위를 맞이하는 방법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고 더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올 여름은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있다. 국내 원전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는 전력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관공서나 대부분의 기업체, 심지어는 학교나 학원까지도 정부의 전력사용제한조치에 따라 실내온도를 27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근무환경이나 수업환경이 최악의 상태이다.

거기에 비하면 산사는 속세와는 동떨어진 별천지이다. 산사에 가면 공기가 맑고 바람이 시원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식으면서 청량하고 소쇄한 기분이 든다. 그러하니 산사에서 여름을 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선의 세계에서 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 몇몇 사찰에 가보면 건물 후면이나 측면에 에어컨 실외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산사에도 에어컨이 필요한 시절이 온 모양이다. 산사에 사는 스님들도 산문을 나서면 에어컨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산사에 다니러 온 불자들도 에어컨 바람에 익숙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산사에서 보는 에어컨은 왠지 어색하기만 하다.

이번 여름 들어서면서 조계사에서 에너지절약에 동참한다는 선언을 하고 사부대중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에너지절약을 하는 사찰이 조계사만은 아닐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역시 우리 스님들이야!" 하며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실로 보살행과 자비행을 스님들이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일이어서 불자로서는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여름 모든 이들이 에너지 절약 정신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전력대란이라는 부끄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불교계가 에너지절약운동에 앞장선다면 불가에서 전통적으로 실천해온 절약하는 모습을 세간의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냉 · 난방기용 실외기는 전통사찰에 어울리지도 않고 에너지절약과도 맞지 않는다. 경기도 ㅂ사찰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눔투어모집]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공식과 함께하는 나눔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후원참여]
[벽돌 한장] 10,000원
[책상 · 의자] 50,000원
[땅 한평]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법당(10명)] 50,000,000원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